

신안테크에 노크하면 미뤘던 공장 자동화 OK!

가산디지털 단지에 소재한 신안테크(주)(대표 김순호)가 최근 대한교과서에 독일 WEKO사의 RFS(용지 신축 방지 시스템) 및 로봇팔레타이저, 두산동아와 재능인쇄에 용지와 일러 등을 공급하는 등 인쇄사의 공장 자동화 사업에서 명성을 높이고 있다.

설립 8년차 맞아 제2의 도약 다짐

신안테크의 김순호 사장은 1985년 대한인크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인쇄업계와 인연을 맺었다. 대한인크에 근무하면서 인쇄 자동화 분야에서 특히 관심을 갖던 김 사장은 1990년대 중반, 8년간의 영업 경력을 자산으로 인쇄 자동화 장비 및 인쇄관련 부자재를 다루는 회사를 동업형식으로 운영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예고 없이 찾아와 인쇄업계는 물론 국가 전체에 시련을 안겨준 IMF 금융 한파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다. 김 사장은 이때 마음의 고향인 인쇄업계를 찾아 재기할 것을 다짐했다. 1999년 1월, 신안테크를 설립하고 그간의 경험을 발판삼아 공장 자동화 설비 및 인쇄부자재 공급사로 새롭게 출발한 것이다. 올해로 창립 8년째를 맞은 신안테크는 공장자동화 장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비롯해 첨단 인쇄부자재 시장의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제2의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설계도면 받아 국내서 OEM 제작, 공급도

공장자동화 설비와 관련, 국내 인쇄업계의 도입 환경이 그리 성숙된 편은 아니다. 몇 년 간 어려웠던 국내 인쇄업계의 경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서 관련 설비의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생산설비를 갖추고 장비를 생산, 공급하는 것보다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된 좋은 제품을 들여와 유통하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다. 신안테크는 이 시장을 공략하며 시장규모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공급사와의 협약을 체결, 핵심부품은 수입하고 주변 장치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방식을 결합함으로써 공급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주력상품인 로봇팔레타이저의 도입과정이 이와 같다. 본체와 컨트롤박스 등의 핵심부품은 일본의 FUJI YUSOKI사에서 수입하고 나머지는 설계도면을 받아 국내서 OEM 제작, 보급한다. 이러한 노력



로봇팔레타이저와 각종 화학약품

으로 몇 년전까지만 해도 2억원 정도하던 로봇팔레타이저의 공급가격을 1억원 미만으로 낮췄다.

안정적 공급선 및 A/S 기술 확보

신안테크는 전세계 10여개 유명 제조업체들과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공급선의 확보는 제조업체로부터 신속한 정보와 지속적인 신기술을 지원받아야 하는 무역업체에게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신안테크는 설비 공급업체에게는 필수적인 빈틈없는 A/S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물론 신안테크가 공급하는 제품들은 세계 최정상급이기 때문에 그리 많은 A/S건이 접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단계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확보하고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잦은 교류와 의사소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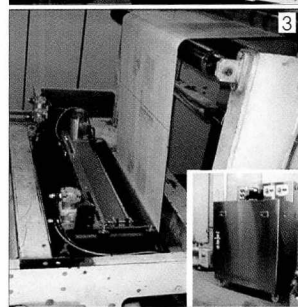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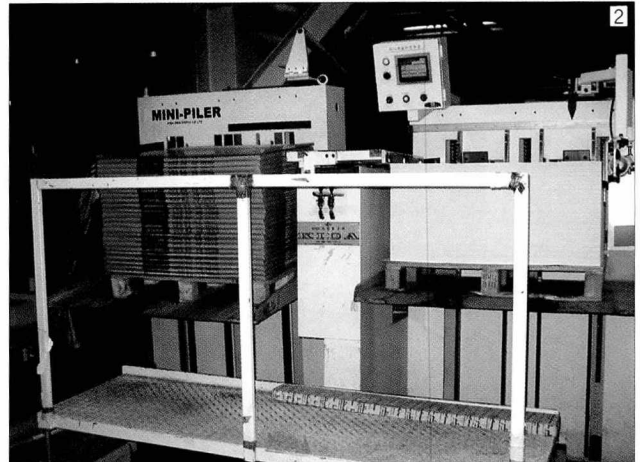
특히, 오랜 기간 쌓인 김 사장의 노하우가 접목된 인쇄 자동화 설비 분야는 자체 기술진을 확보하고 고객사에게 한 치의 오차도 없는 A/S를 제공한다. 이외 로봇팔레타이저나 용지 반전기 등은 신안테크 직원들이 각 제조회사를 직접 견학, 조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교육받음으로써 빈틈없는 A/S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안테크는 직원들의 외국어 학습도 지원하고 있다. 무역업체의 특성상, 취급하는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습득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로봇팔레타이저 · 용지 신축 방지 장치 각광

윤전 인쇄 작업 시, 로봇팔레타이저(Robot palletiser)는 고속의 작업에 따른 다량의 윤전 인쇄물을 팔레트에 효율적으로 적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신안테크가 공급하는 일본 FUJI YUSOKI사의 로봇팔레타이저는 최소 용량의 전력 사용으로 최대의 작업 효과(2.0KVA)를 내는 간접 구동방식으로 수리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물류전용으로 개발되어 다양한 패턴 제작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크기의 팔레트 활용이 가능하고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조작이 간편하며 국내 기술진에 의한 설치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윤전 인쇄물의 문제점인 용지 신축문제와 컬(curl)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지 신축 방지 시스템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 시스템은 지중에 상관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 autopile 2. minipiler
3. RFS(용지 신축 방지 시스템)
4. 블랭킷과 세정포

가, 설치와 사용 및 유지관리는 편리한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독일 WEKO사의 RFS(용지 신축 방지 시스템)은 윤전 인쇄기의 건조기를 통과할 때 소실된 수분을 원지 수준의 수분 함수율로 복원시켜 주고 제본 후에도 용지의 신축과 컬현상을 방지시켜주며 정전기도 100% 예방함으로써 고품질 인쇄와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

용지 반전기 · 가습 장치도 인기

매엽 인쇄 작업 단계의 자동화는 용지 적재가 주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용지반전기를 사용함으로써 노동 강도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중량물을 적재하고 반전함에 있어 안전과 편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신안테크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KIDA사의 용지 반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 장비는 전면 인쇄 후 자동으로 용지를 반전 시켜주는 장비이다. 또한 포장지를 제거한 후에 손쉽게 용지를 적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용지 파일러도 공급하고 있다.

인쇄 현장에서 습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전기를 방지하고 인쇄 품질을 향상시키며 공장 내부의 지분, 먼지 등을 제거함으로써 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시간당 12 l 기준으로 40~50평의 가습이 가능할 정도

로 분무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설치 및 유지 관리가 간편하다. 가습량 조정 v/v 및 압력게이지가 내장돼 있고 센서감지에 의한 항습 제어가 가능함으로써 조작성이 편리하고 토출구 방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환경 친화 인쇄 부자재 다수 확보

신안테크는 국내 인쇄업계에 환경 친화적인 인쇄 부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UltraChem사의 저IPA형 습수액, 무공해 세정액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 Meiji사의 인쇄용 블랭킷, 자동 블랭킷, 세척용 세정포 등을 공급한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



차한잔 | 김순호 대표

“인쇄업은 마음의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

시장의 한계 때문이다. 이에 국내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선진 각국에서 개발된 훌륭한 제품들을 국내에 보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인쇄업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제품을 더욱 좋은 조건에서 공급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업을 기계가 대체, 인쇄용지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적재하고 반전하는 장치이다. 캔잉크가 아닌 드럼으로 잉크를 공급하여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잉크중앙공급장치는 폐캔을 발생시키지 않아 비용 절감 및 환경 보호에도 기여한다. 블랭킷, 습수액, 세정포 등은 친환경 제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다.

◎ 신안테크 운영의 목표는?

◎ 인쇄업은 마음의 고향과 같다. 인쇄 공정의 성력화와 환경개선을 위한 역할을 '신안테크'의 운영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의 좋은 시스템을 열심히 공부해서 국내 업계에 접목시키는데 미력하지만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 인쇄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와 부자재들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출시돼 있다. 물론 이러한 제품들이 국내에도 개발돼 있지만 선진국에서의 개발이 훨씬 활성화 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적은 규모의 내수

◎ 주력 제품은 무엇인가?

◎ 크게 공장자동화 제품과 인쇄부자재로 나눌 수 있다. 공장 자동화 제품은 대표적으로 용지 신축 방지 장치, 로봇트팔레타이저, 용지 반전기, 잉크 중앙 공급 장치 등을 들 수 있으며, 인쇄 부자재는 블랭킷, 습수액, 세정포 등을 들 수 있다. 로봇트팔레타이저는 운전 인쇄 작업시에 단순 반복적인 인쇄물 쌓기를 로봇트가 자동으로 적재하도록 하는 것이고, 용지반전기는 사람이 하던 작

◎ 향후 계획은?

◎ 인쇄 공정의 성력화를 위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어 내는 길을 열심히 찾아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매일 매일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객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고객들의 관심에 성심껏 보답하고 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